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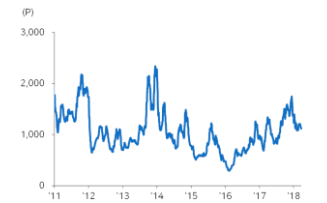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925.2	18.7	143,500	-2.0	9.5	49.6	49.6	100.0	47.9	0.7	0.7	0.7	14.4
현대로보틱스	6,962.5	21.4	427,500	0.6	-3.4	12.2	12.2	5.8	4.8	0.8	0.7	14.1	14.7
현대일렉트릭	852.2	7.4	83,500	-1.2	-7.7	-26.8	-26.8	7.9	6.9	0.7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767.9	8.7	179,000	-2.2	5.3	5.9	5.9	11.4	8.4	1.3	1.1	11.7	13.9
삼성중공업	3,632.7	15.5	7,970	-1.2	5.6	23.2	23.2	50.3	24.9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986.4	3.9	28,000	-2.6	12.0	101.4	101.4	10.8	11.8	0.9	0.8	8.5	7.0
현대미포조선	2,010.0	12.8	100,500	-2.9	-7.8	27.7	27.7	21.7	15.7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30.4	6.8	3,115	-2.4	-7.0	-5.9	-5.9	62.7	15.6	0.5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990.3	30.9	80,000	2.6	36.3	47.1	47.1	14.1	13.7	1.9	1.7	14.6	13.3
두산인프라코어	3,172.9	27.1	31,650	-1.1	-6.9	-11.6	-11.6	11.6	10.9	0.9	0.8	7.4	7.6
현대로템	1,343.0	25.5	15,800	-1.6	2.3	-15.7	-15.7	20.4	13.9	0.9	0.9	4.5	6.3
하이룩코리아	303.6	48.1	22,300	-2.0	-9.5	-0.9	-0.9	10.1	9.2	0.9	0.8	8.8	9.0
성광케미	341.8	16.7	11,950	0.0	-2.8	19.7	19.7	1,056.4	42.8	0.8	0.7	0.1	1.8
태광	339.2	15.2	12,800	-0.8	-13.2	6.2	6.2	76.4	37.3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724.7	10.4	16,200	-2.1	8.4	5.5	5.5	13.3	10.0	0.6	0.6	4.3	5.3
두산인프라코어	2,033.6	13.6	9,770	-0.7	4.6	12.4	12.4	8.7	7.8	1.0	0.9	12.0	12.4
두산인진	417.0	3.5	6,000	-1.3	39.4	62.8	62.8	-196.9	60.6	0.8	0.8	-0.4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912.7	17.5	50,400	-1.2	0.2	6.2	6.2	35.8	24.8	3.8	3.4	10.6	13.9
한화테크윈	1,509.6	12.9	28,700	-1.4	-1.5	-19.3	-19.3	22.6	14.6	0.7	0.6	2.9	4.3
LG넥스원	1,036.2	11.0	47,100	-3.4	-3.9	-21.2	-21.2	18.5	13.3	1.6	1.5	8.9	11.5
태웅	384.1	3.7	19,200	1.1	-11.3	-0.8	-0.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24.2	5.3	8,310	-2.8	-5.6	64.6	64.6	-346.3	49.2	2.4	2.4	-0.7	5.0
한국카본	278.3	15.9	6,330	-2.6	-2.0	18.1	18.1	52.5	28.3	0.9	0.8	1.7	3.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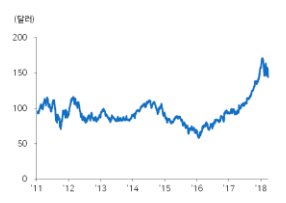
##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37** 108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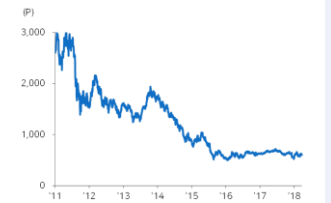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1.83** 145.16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Unisea inks aframaxes at Samsung

지난 월요일 삼성중공업은 그리스 선사 Unisea에서 수주했던 11.5만DWT급 Aframax 탱커 2+2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 예상 5천만달러로 예상함. 선박은 2019년 말 인도예정이며, 동형 선박의 클락스 기준 선가는 4,550만달러 수준임. (TradeWinds)

### 남준우, 삼성중공업의 호주 해양플랜트 수주전 승리 자신

코노코필립스가 바로사 프로젝트에 쓰일 FPSO의 FEED(기본설계)를 진행할 회사 2곳의 수주 경쟁에서,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수주에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알려짐. FPSO의 원정계약자 입찰에서 조선 3사 중 삼성중공업이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고, FEED를 진행하는 컨소시엄이 향후 해양플랜트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 US LNG exports quadrupled in 2017

EIA에 따르면, 2017년 미국 LNG 수출량은 1.94Bcf/d으로, 전년도 0.5Bcf/d 대비 약 4배 증가했다고 알려짐. 중국, 한국, 멕시코가 미국의 수출 53%를 차지했고, 대부분 Sabine Pass에서 수출됨. EIA는 미국의 수출증가가 생산능력 확대에서 기인했다고 분석, 19년 말까지 9.6Bcf/d까지 증가를 전망함. (TradeWinds)  
\* Bcf/d: Billion cubic feet per day

### 삼성중 · 대우조선, 애물단지 해양플랜트 7척 어저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를 못한 Drillship이 각각 3척, 4척을 보유한 상황임. 삼성중공업은 퍼시픽드릴링(PDC)에서 1척, 오션리그에서 2척을 보유하고 있음. PDC는 중재 관련 소송으로 선수금의 절반을 총당금으로 쌓았으나, 오션리그는 인도 지연과 함께 계약금을 인상했고, 선수금도 30% 이상 받았기 때문에 인도가능성이 높아 총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고 알려짐.

대우조선해양은 옛우드 오서닉 2척, 소난골 2척의 Drillship이 인도가 지연됨. 옛우드 오서닉 건은 인도 연기와 함께 계약금의 50% 가량을 선수금으로 받아서 총당금 적립을 하지 않은 반면, 소난골 건은 20%만 선수금을 받아 총당금을 적립했다고 알려짐. 최근 소난골 경영진이 바뀐 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소난골의 재무상황은 어렵지만 Drillship 인도에 대한 의지는 크다고 알려짐. (조선비즈)

### Sembmarine confirms Karish award

싱가폴 Sembcorp Marine은 이스라엘에서 Energean Oil & Gas 사가 개발하는 Karish FPSO 프로젝트에서 수주했다고 알려짐. Sembmarine은 TechnipFMC에서 FPSO의 EPC 계약을 수주했고, 계약규모는 16억달러로 알려짐. 해당 설비는 2020년 4분기 완공될 예정이며, 2021년 1분기 생산을 목표로함. (Upstream)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가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3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3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